

중소, 대기업과 AI 활용 격차 11배... 'AX 중요' 인식도 낮아

중기중앙회, AX 확산정책 토론회
제조업 AI 활용률 2.5% 그쳐
수도권·비수도권 도입 격차 3.4배
64% “스마트제조혁신 안 중요해”
스마트공장 보급 넘어 AX 혁신 과제
“업종 단위 공동형 접근 효과적”

제조 중소기업들의 인공지능(AI) 전환(AX)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중소기업간 AI 활용 격차가 최근 6년간 11배까지 벌어져서 나타났다. 제조업(2.5%)의 AI 활용률은 서비스업(6.8%)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같은 제조 중소기업이라도 수도권(6.1%)과 비수도권(1.8%)의 AI 도입률 격차는 3.4배까지 벌어졌다. 게다가 제조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스마트제조혁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등 AX(인공지능 전환)가 여전히 갈 길이 먼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신 성장동력, AI 전환(AX) 확산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주미 수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신 성장동력, AI 전환(AX) 확산정책 토론회’에서 (앞줄 왼쪽 4번째부터)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진병채 카이스트 교수, 이영환 고려대 디지털혁신연구센터장, 양찬희 중소기업중앙회 전무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석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소 제조기업 맞춤형 AX 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3년 현재 기업 규모별 AI 활용률은 대기업이 1.0%에서 13.5%로 크게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0.25에서 4.5%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중소기업간 AI 활용률 격차는 이 기간 0.8%포인트(p)에서 9.0%p로 11배가량 차이가 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도권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간 격차도 심화됐다.

이 기간 AI 활용률은 서비스업이 0.3

→6.8%, 제조업이 0.2→2.5%로 각각 늘면서 제조업이 한참 뒤쳐진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0.3→6.1%, 비수도권 기업은 0.1→1.8%로 지역간 격차도 3.4배나 벌어졌다.

김주미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19.8%로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며 구축 수준도 73.8%가 ‘기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제조데이터 수집 방법은 3.9%만 ‘실시간 자동 수집’을 할 뿐 대부분은 ‘수동 입력’ 중심이었고, 수집을 하지 않는

기업도 21.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아플레이팅 이오선 대표는 “중소기업 현장에선 직접 경험, 수작업 중심의 업무 방식에 익숙해 디지털, AI 전환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존재한다. 또 AI가 직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불안감도 있어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AX는 효과가 누적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등 도입 효과를 사전에 정량화하기 어려워 투자 결정도 쉽지 않다”고 토론했다.

이날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 이영환 디지털혁신연구센터장은 AX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AX 확산에 필요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부문별 중간 조직을 활용한 지원정책을 제언했다. 또한 ▲업종별 공동 수요 집적 ▲공동실증 ▲표준 AX 모델 구축 ▲업종 단위 확산으로 구성되는 AX 확산구조를 제시하며, AX 플랫폼으로서 업종별 협·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에서도 AI 전환이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필요할 때”라면서 “업종마다 생산 데이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 단위의 공동형 접근이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AX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 중심의 업종별 AX 확산체계 구축 ▲현장 중심의 AX 역량 강화 교육 지원 확대 ▲AX위한 솔루션 구축·운영비용(OPEX)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韓 전력설비, 북미 AI 데이터센터 시장 본격 공략

LS일렉트릭, 1050억 배전기기 공급
가온전선, 버스덕트 장기계약 확보
HD현대마린솔루션, 엔진 AM 진출

북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국내 전력설비 기업들의 수요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증설 수요 급증에 따라 LS일렉트릭은 배전기기, 가온전선은 버스덕트, HD현대마린솔루션은 발전엔진 유지·보수 분야에서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미국 현지 빅테크 기업의 대형 데이터센터에 적용될 약 7000만달러(약 1050억원) 규모의 배전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LS일렉트릭은 데이터센터 핵심 전력 계통망에 진공차단기(VCB) 등 하이엔드 전력기기를 공급한다.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서버가 24시간 가동되는 만



HD현대마린솔루션은 최근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 기업 AEG(Aperion Energy Group)와 데이터센터 전력용 엔진 유지·보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HD현대

큼 전력 공급 안정성이 서비스 연속성과 직결된다. 짧은 전력 차질도 데이터 손실과 서비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 전력기기의 신뢰성, 운용 실적, 납기 대응 능력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LS일렉트릭은 이번 수주를 통해 북미 데이터

센터 배전 인프라 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온전선도 대용량 전력 공급 설비 수요에 대응하는 장기계약을 확보했다. 미국 자회사 LSCUS는 이날 미국 빅테크 기업 A사와 향후 5년간 버스덕트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약 500억원 규모 공급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수십 곳에 버스덕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누적 공급 규모는 최대 4조원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버스덕트는 대규모 전력을 데이터센터 내부에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설비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대용량 전력 공급 시스템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

LS일렉트릭과 가온전선이 전력 설비 공급 계약을 확보한 데 이어 발전설비

유지·보수 분야에서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북미 시장 접점을 넓히고 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 기업 AEG와 데이터센터 전력용 엔진 유지·보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사는 AEG가 미국 텍사스주에 건립 중인 데이터센터에 투입되는 전력용 엔진 33기에 대해 장기 유지·보수와 운영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HD현대중공업이 지난 4월 체결한 데이터센터 전력용 발전설비 공급 계약의 후속 단계이다. HD현대중공업은 당시 20MW급 힘센(HiMSE N) 엔진 기반 684MW 규모의 발전설비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HD현대마린솔루션은 엔진 납품 이후 유지·보수 서비스를 맡는다.

/원관희 기자 wkh@

중기부, ‘모두의 챌린지’ 뷰티·플랫폼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부터 모두의 챌린지 내 ‘뷰티’와 ‘플랫폼’ 분야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모두의 챌린지는 전략신산업 분야 창업기업과 분야별 선도기관 간 기술실증(PoC), 판로 확보 등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AX(인공지능 전환), 방산, 로봇 등 9개 분야별로 진행 중이다.

뷰티 분야는 화장품의 대기업 인프라 및 데이터와 창업기업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결합해 해외 시장 내 K-뷰티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내달 8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아모레·LG생건·한국콜마 참여
카카오모빌리티·카뱅·토스 협업

수요기업으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등 3개 대기업이 참여한다. 이들은 뷰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 혁신 및 고객 경험 고도화 등을 위한 협업을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개사에는 최대 1억원의 협업 자금과 대기업 해외 유통망과 마케팅 채널을 통한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플랫폼 분야는 기업의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와 서비스 인프라, 창업기업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영 등을 돕고,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한다. 수요기업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토스 등 3개 대기업이 나섰다.

선정된 10개사에는 소상공인 경영 전반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지원체계) 개발과 최대 1억원의 협업 자금이 주어진다. /김승호 기자

기보, 회생기업 재기·부산 中企 M&A 지원

서울회생법원과 재기지원 협약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연계

기술보증기금이 회생기업들의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부산지역 기술 중소기업을 위해 인수 합병(M&A)도 지원한다.

기보는 서울회생법원과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을 발굴하고 금융지원을 연계해 회생기업이 안정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

차 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등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협력해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기보가 운영 중인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은 기술력이 우수한 실패기업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제도다. 회생절차 진행기업이 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계획을 1회 이상 이행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술평가와 심사를 거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벤처협회, 벤처코칭멘토 인증 2기 모집

국내 첫 벤처 특화 인증과정
내달 10일까지 참가자 모집

벤처기업협회가 국내 최초의 벤처 특화 코칭멘토 인증제도인 ‘KVMCC(K-VentureMentor-Coach Certification) 2기 인증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18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강한 1기에선 총 25인의 정식 벤처코칭멘토(VMC)를 배출했으며, 이번 2기는 약 5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모집은 오는 6월 10일까지다.

KVMCC는 벤처협회, 한국코치협회,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가 공동 설계한 인증 체계로, 코칭 역량과 벤처 현장 경험을 함께 갖춘 ‘코칭형 멘토’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단순 조언을 넘어 창업가가 스스로 답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벤처협회는 KVMCC를 통해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검증된 멘토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2기 모집은 서류심사를 통해 50명 가량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이후 필기·실기·면접으로 구성된 3단계 인증 심사를 거쳐 최종 25인 내외의 정식 벤처코칭멘토(VMC)를 배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KAC 이상 전문코치 ▲산업 분야 15년 이상 경력 전문가 ▲창업·벤처투자 유경험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